



# 가평 산야에서 사슴볼 날 멀지 않았다

— 가평군수, 관내 국유림 사슴방목 허용 방침 밝혀 —

“사슴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가평으로 오세요”

조만간 가평 산야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사슴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지난 1월 9일 관내에 위치한 별빛사슴농장(대표 김종호, 가평지회장 겸 본회 이사)에서 가평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슴 방목을 위해 관내 국·군유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회원들의 건의를 수락했다.

양군수는 이 자리에서 “청정지역 가평만큼 사슴 키우기 적합한 곳도 드물 것”이라 전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가평의 소득산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슴방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가평지회 회원과의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양재수 가평군수

1시간 여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양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관내 사슴방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종호 가평지회장에게 사슴방목에 적당한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선정할 후 가평군청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양군수는 “가평군은 상수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심한 편이나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된다”라고 일축하고 “방목지역이 선정되면 회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한편 레저 산업과의 연계도 구상해 보겠다”며 적극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평지회 회원들은 “군수가 직접 농가를 방문,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사슴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에 힘이 솟는다”며 가평군수의 사슴산업 육성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한편 양재수 군수는 간담회 외에도 사슴농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양록업 시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갔다. **한국양록**